

“감염병 위기경보수준, ‘관심→주의’로 격상…메르스 원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 상황 및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에서 3년만에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의 모습.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하고 7일 귀국한 메르스 확진자 A씨(61세, 남)는 입국 직후 발열과 가래 등 메르스 증상을 보여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해 현재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해외서 국내 유입 시 주의단계 발령 전국 17개 시도에 알리고 시도별 지역방역대책반 가동 지시 밀접접촉자 21명으로 한명 늘어나…일상접촉자 440명 확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일 오후 긴급상황센터장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고 9일 밝혔다.

관심단계는 해외에서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주의단계는 해외 메르스가 국내로 유입됐을 때 내려진다. 메르스가 국내에 제한적으로 전파

됐을 때는 경계단계, 메르스가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때는 심각단계가 발령된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 모든 시도별로 지역방역대책반을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또 서울시와 함께 확진환자 입국 이후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환자 이동경로 조사 결과 삼성서

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음압격리구급차(운전기사 개인보호구 착용)를 이용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환자진료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접촉자는 21명이다. 이는 8일 발표된 밀접접촉자 수 20명에서 1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현재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역 보

건소에 의해 자택에 격리됐다. 이들은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된다.

확진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440명) 명단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됐다.

일상접촉자들은 잠복기 14일 동안 관할보건소로부터 정기적(5회)으

로 유선·문자로 연락을 받는다.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해당보건소로 연락해야 한다.

질본은 “중동방문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여행 중 농장 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악하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

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협조하고 귀국 2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라”고 요청했다.

3년 만에 메르스 확진...시민들 “과거 사태 재현?” 우려 확산



국내에서 3년만에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격리병실이 통제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떠올라 불안”
“조기 종결, 피해 최소화 기대한다”
“병원 진료 피해야 하나” 불안 확산

3년여 만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며 “두렵다”는 반응을 보이기에 이른다.

9일 메르스 확진 소식을 전해들은 직장인 진모(29·여)씨는 “몇 년 전에 메르스 공포에 떨었는데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 두렵다”라며 “질병예방체계가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자영업자 김모(31)씨는 “3년 전 메르스가 처음 발병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다”라며 “이번엔 사태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나 지자체단체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개인들도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26)씨는 “국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신경써왔을 부분인데 또 문제가 된다면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라며 “잘 넘어가지 못하면 한국 방역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는 불안이 커질 것 같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모(30·여)씨는 “지난번에 메르스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았나. 이번엔 또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니 불

안하다”라며 “이번에는 초기 대응을 잘 해서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를 골강 격리 진료하고 환자를 접촉한 의료진 4명도 자택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상기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상에서도 “2015년에도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의 시작점이었는데 불안하다”, “다음 주에 삼성서울병원 진료가 있는데 괜 찮을까”, “전에 삼성서울병원 대처 때문에 (메르스가)확산됐다. 이번에도 지켜보겠다” 등의 막연한 공포감과 우려를 나타내는 네티즌들의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전날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쿠웨이트 방문 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A(61)씨가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메르스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 판

정을 받았다. 질본은 잠복기 등을 고려해 A씨가 쿠웨이트에 머물 때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역학조사와 현장 대응을 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에 수용된 상태로 의료진은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건 2015년 5월20일 첫 확진 이후 3년여 만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15분께 귀국 직후 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개별리무진을 통해 옮겨졌다. 삼성서울병원은 같은 날 오후 7시22분께 A씨가 내원하자 즉시 응급실 선별격리실로 격리해 진료했으며 오후 9시34분께 질병관리본부에 의심환자로 신고했다.

질본이 전날 발표한 밀접접촉자(환자 2m 이내 접촉 또는 같은 공간 생활)는 총 21명이다. 접촉자 수는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뉴스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